반년 간의 교환학생을 마치며

고려대학교
이연우
학번 k2490044

반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도 빠르게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짧지만 많은 추억과 배움을 안겨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낯선 문화와 언어적 장벽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혼자 생활한다는 경험에 있어 많은 부담을 느꼈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인해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본 사회와 문화를 다루는 일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발표 준비나 레포트 등의 수업 활동을 일본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 언어 능력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학업 외 시간에는 멀리 여행을 다니기보다는 도쿄와 그 주변 근교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반년 간의 일본 생활을 즐겼습니다. 날이 좋을 때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지도를 켜지 않고 무작정 걸어본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근교로 떠나는 등 여행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근교가 아닌 먼 지역으로의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우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교환학생을 계획하는 분들께는 학업과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도, 미리 여행 스케줄을 세우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을 단풍이 들 때의 교토나 외국에서는 직행으로 가기 힘든 지방 소도시 등

도쿄에서 더 멀리 나갈 계획이라면 미리 여행 스케줄을 세우는 편이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보낸 반년은 제게 많은 성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이신 카토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오차대 교수님께 모든 오차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와 같은 시기를 함께한 학우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반년동안 감사했습니다.